

특하면 결항...거문도 주민들 여객선 직접 운영

삼산면 여객선협동조합 발기인회 구성 주민·향우·일반인 조합원 모집

10개 마을 대상 조합설립 설명회

여수시 삼산면 주민들이 쫓은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문제를 빚어 온 여수~거문도 항로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0일 여수시 삼산면사무소에 따르면 여수 삼산면 주민들이 지난 9일 거문도여객선터미널 회의실에서 (가칭)삼산면주민여객선협동조합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었다.

발기인회는 삼산면 주민과 향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동의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창립총회 개최, 설립 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등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삼산면지역발전

위원회를 주축으로 삼산면 10개 마을과 여수지역 향우회를 방문해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를 하는 등 조합 설립 작업에 들어갔다.

나용진 발기인회 대표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이 하루 속히 취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협동조합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 설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여수와 삼산면을 오가는 여객선은 1개 선사에 1척이 있으나 여객선이 낡고 단일 선사가 운영하다보니 결항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선령 만료로 대체선이 투입되지 못한 채 7일 동안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2000여 주민들의 발이 묶이고 해풍속·삼치 등 특산물 배송에 차질을 빚었다.

삼산면 주민들은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선사 유치와 노후 여객선의 대체선 확보 등을 여수해양수산청과 선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9일 여수 삼산면 주민들이 여객선협동조합을 구성해 여수~거문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여수시 제공>

광양항에 신규 컨 2항차 유치 연 5만2000TEU 물동량 창출 씨랜드 10일 첫 기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에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2항차를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의 자회사 씨랜드가 이날 오후 처음으로 광양항에 기항한다.

씨랜드는 컨테이너 화물 6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싣고 광양항을 거쳐 중국 다롄(大連)으로 향한다.

한국과 일본을 주로 오가는 남성해운은 16일 광양항에 처음 기항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화와 이메일 등 비대면 마케팅에 집중해 신규 항로 유치에 나섰다.

공사 측은 이번엔 새로 2항차를 유치함에 따라 연간 5만2000TE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새 항로가 유치돼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관광산업 코로나19 직격탄...지역경제 '암울'

장미축제 취소에 입장객 작년 18% 수준

코로나19로 장미축제가 취소되면서 곡성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장미축제가 취소되면서 축제장인 섬진강가치마을 입장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곡성군은 축제 취소에도 장미가 만개한 시기 축제장을 개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5월 11일~6월 7일 사이 불과 6만

8261명이 방문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하루 평균 401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난해 10일 축제 기간 2만2647명과 비교하면 17.7% 수준에 불과했다.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입장 수입도 급감했다. 지난해 10일 축제 기간에 9억7000여만원의 입장 수익을 거둔 것에 비해 올해는 축제 예정 기간이 일주일 늘었음에도 3억4000여만원에 그쳤다.

곡성 장미축제는 축제 전후 방문객까지 합하면 현재 20만~30만명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곡성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유료 입장객 수익만 해마다 9억~13억원에 달하

고, 5000원 입장료를 내고 2000원 지역 화폐를 되돌려 받는 시책으로 수백억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돼 축제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이 심각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 타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객 수익이 줄어들 자재 예산으로 인건비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손해보다 지역축제를 기대하고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군, 오지3구 치매안심마을 2호 지정

곡성군은 오곡면 오지3구마을을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해 치매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다.

오지3구마을은 마을회관을 마을 거점 치매센터로 활용해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 검진 및 예방교육, 대상자별 인지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 치매환자 가정에 치매안심관리사를 주 2회 파견해 인지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치매환자들을 위해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조성한다.

곡성군은 지난 5일 오지3구마을에서 치매안심마을사업설명회와 현판식을 했다.

앞서 곡성군은 지난해 석곡면 덕동리를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에 서 주민들 모두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곡성군은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된 오곡면 오지3구에서 지난 5일 사업 설명회와 현판식을 했다. <곡성군 제공>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울여름 구례 수락폭포 물맛이 못한다

상류 낙석 자주 발생 출입 통제

방지망 설치 등 공사 후 개방

구례군은 여름철 관광명소인 수락폭포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구례군은 해빙기 안전 점검에서 수락폭포 상류부에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확인, 상류부 일대를 위험 구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8일부터 통제했다.

폭포 주변의 계곡과 물놀이 시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울여름 수락폭포 물맛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은 수작업으로 낙석 제거와 방지망 설치 등 최소 2개월 이상 보수공사를 마친 뒤 폭포를 개방할 방침이다.

수락폭포는 15m 높이의 기암괴석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와 물단풍, 소나무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한다.

신경통·관절염·근육통·산후통 등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여름이 되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려는 인파가 몰린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수락폭포의 공기 1m당 산소 흡수율은 평균 1만4060개, 최대 17만8100개로 도시의 34배 수준이며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산소흡수율은 인체의 면역력 증진, 알레르기 비염 천식증상 완화, 혈액 정화, 두뇌기능 향상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피서객들이 구례 수락폭포에서 물맛이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수락폭포 출입이 금지됐다. <구례군 제공>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